

鄭夢周의 使行詩를 통해 본 山東 遼靄와 登萊*

최낙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山東使行路 개통을 위한 고려의 외교적 노력
3. 山東 遼靄의 '軍容'과 登萊의 '景物'
 - 1) 海北 山東 '遼靄의 軍容'
 - 2) 海南 山東 '登萊의 景物'
4. 나오는 말

【초록】

본고는 명 건국 이후 산둥사행로 개통을 위한 고려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정몽주가 1386년 사행에서 남긴 시를 통해 산둥 遼靄 지역의 군용과 登州와 萊州 지역의 경물을 살펴보았다. 정몽주는 요습 땅을 오가며 명나라가 전략 요충지에 설치한 衛所와 驛站 등을 시로 기록하고, 遼河를 가득 메운 漕運船을 시에 담았고, 旅順口에서는 군사와 군수물자를 나르는 수많은 병선을 목격하고 시로 남겼다. 발해를 건너 등주와 래주를 경유한 정몽주는 사마천의 『史記』 등 역사서와 선인들의 문집에 기록된 진시황과 관련한 蓬萊閣과 之罘山, 田橫의 고사와 관련한 田橫島와 鳴呼島, 海神廟 등에 대한 시뿐만 아니라 현지 뱃사람들의 媽祖信仰을 기록했다. 본고는 산동의 경물과 함께 요동 정벌을 위해 군용을 갖추어 가던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정몽주의 시가 갖는 '詩史'적 가치를 밝히고자 했다.

【키워드】 鄭夢周, 使行, 山東, 軍容, 景物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1098).

** 최낙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qiushui@kmou.ac.kr)

1. 들어가는 말

서른이 갓 지난 나이에 ‘東方 理學의 始祖’라 불린 鄭夢周(字 達可, 1337~1392)는 圃隱齋를 짓고 전원에 은거하며 유학자의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결국 조정을 떠나진 못했다.¹⁾ 정몽주가 활동하던 14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대륙에서는 元과 明이 교체되면서 북방의 민족 문제가 심각했고, 일본열도에서는 천황과 무사 세력이 힘을 다투는 ‘南北朝內亂(1336~1392)’으로 왜구가 창궐하였다. ‘北虜南倭’의 위기에 처한 고려에서는 새로운 왕조건설을 꿈꾸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정몽주는 고려의 사직을 지키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7번이나 사행에 나섰고, 그중 3번은 새로운 왕조의 京師인 南京을 방문하여 당면한 외교 문제를 해결했다.

朱元璋이 1368년 남경에서 명을 건국한 이후부터, 1421년 그의 아들 朱棣가 北京으로 천도할 때까지 고려 사신들의 사행 목적지는 남경이었다. 그러나 남경으로 가는 사행로는 고려 조정이나 사신들이 자유롭게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進貢路’였기 때문에 명에서 정해놓은 대로 따라야 했고, 명의 정치에 변동이 있으면 자연히 사행로도 변화였다.

遼東은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육상 통로이기 때문에 각종 외교사절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초기 요동 지역은 納哈出와 北元の 세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 사행로는 ‘陸路’가 아닌 ‘海路’였고, 시기마다 해로의 구체적인 航線에도 변화가 있었다. 때문에, 정몽주는 1372년 禮成港을 출발해 서해를 횡단하여 첫 번째 사행에 나섰고, 1384년과 1386년에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반도를 종단한 후 渤海를 건너 登州와 萊州를 거치는 사행로를 이용해 남경에 도착하였다.

明太祖는 원의 遼陽行省平章이던 劉益이 遼東州郡의 地圖와 錢糧, 兵馬의 수를 기록한 문서를 들고 歸附(1371)하자 定遼東衛指揮使司를 설치하며 요동에 대한 經略을 시작했다. 하지만 1387년 納哈出 세력을 정벌하기까지는 완전한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다. 본문에서는 먼저 山東²⁾을 통과하는 육로, 즉 山東使行路 확보를 위한 고려의 외교적 노력을 살펴보고 당시 요동의 정세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몽주가 138

1) 李穡, 『圃隱齋記』, 『圃隱集』卷四: “今達可隱於圃而立于朝, 以斯道自任, 抗顏爲學者師, 非其眞隱也明矣. 將與牧者陶者而伯仲乎.”

2) 명태조 주원장은 새롭게 확보한 요동지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설치한 定遼東衛에는 군사권만을 부여하고, 民政·司法事務는 山東布政使가 책임지게 하여 요동지역을 산동에 귀속시켰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山東은 現 山東省과 遼寧省을 포함한 명대의 산둥이다.

6년 마지막 사행에서 남긴 使行詩를 중심으로 그가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지나며 목격하고 기록한 발해 북쪽(海北)의 산동, 즉 遼靄의 軍容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발해의 남쪽(海南) 산동 중 登州와 萊州에서 관광한 景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정몽주의 산동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몽주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풍부하다. 특히 그의 학문과 사상, 사행과 외교 활동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그러나 정몽주의 시를 명대 초기 산동의 구체적인 역사 상황과 결부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문에서는 정몽주의 사행시 가운데 기왕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산동 ‘요습의 군용’과 ‘등래의 경물’을 기록한 작품을 당시의 역사 상황과 결합하여 분석하고, 그의 시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2. 山東使行路 개통을 위한 고려의 외교적 노력

1368년 정월, 남경에서 황위에 오른 명태조 주원장은 새로운 왕조의 건국을 알리기 위해 11월 符寶郎 僂斯를 고려에 파견하였다. 험난한 바다의 관문을 거친 사신들은 다음 해 4월이 되어서야 고려에 도착했다.⁴⁾ 명태조의 친서를 받은 恭愍王은 5월 원의 至正年號 사용을 중지하고, 禮部尙書 洪尙載 등을 파견하여 金陵에 가서 表文을 올려 등극을 하례하고, 封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 이에 명태조는 1369년 8월 공민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는 詔書를 보냈고, 다음 해 5월 고려와 명나라 간의 정식 외교가 수립되었다.⁶⁾ 공민왕은 1370년 7월 9일부터 명의 洪武年號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왕래했던 양국 사신들의 사행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서해를 건너 사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무 3년(1370) 中書省에서 “고려의 사자가 조공을 바치러 올 때에 사사로운 物貨를 많이 가지고 와서 팔고 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거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명태조는 “먼 나라 오랑캐가 일만리 바다를 건너와서 잠시 물건을 팔고 이익을 구하는 것을 상인들과 같이 논하기는 어렵다.

3) 포은학회의 학술지 『圃隱學研究』를 통해 매년 정몽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소개되고 있고, 학회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포은 정몽주의 학문관과 세계관』(2014), 『포은 정몽주의 외교활동』(2015) 등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4) 『高麗史』 卷41, 「恭愍王世家」 18年 4月 28日 壬辰.

5) 『高麗史』 卷41, 「恭愍王世家」 18年 5月 11日 甲辰.

6) 『高麗史』 卷42, 「恭愍王世家」 19年 5月 26日 甲寅.

그들이 교역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거두지 말라.”⁷⁾라고 하였다. 다음 해에는 戶部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高麗와 三佛齊에서 입공하는데, 고려의 해양 선박은 太倉으로, 삼불제의 해양 선박은 泉州의 海口로 들어오니 모두 청하건대 그 화물에 세금을 거두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⁸⁾

이상의 기록을 통해 고려와 명의 사신들 모두 해로를 통해 이동했고, 고려의 使行船은 서해를 횡단하여 江蘇 太倉으로 입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上海에 인근한 태창은 원대부터 해상을 통한 漕運이 시작되면서 해외무역이 번성했고,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육국의 부두(六國碼頭)’라는 별칭을 가진 중요한 해항도시가 되었다. 명나라 초기에는 변방을 지키는 太倉衛가 설치되었고, 당시 외국으로 오가던 선박들은 태창위로부터 公驗을 받거나 화물 징세를 받아야 했다.⁹⁾

예성항을 출발해 서해를 종단하여 태창에 이르는 해로에는 언제나 태풍이나 암초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행길에 나선 사신, 貢馬와 貢物들을 실은 사행선들이 난파하는 해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양국 간 외교 교류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안전한 육로 대신 위험한 해로를 계속 고집한 것은 요동을 포함한 북방지역에서 원의 잔여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무 4년(1371), 북원의 요양성평장인 유익이 귀부하자 명태조는 요양에 定遼都尉를 설치하고 역참을 세워 요동지역 경영을 시작했다. 공민왕은 이러한 요동의 정세 변화를 파악하고 11월 중서성에 위험한 해로를 대신해 원래 유익의 근거지였던 金州(現 大連)와 復州(現 瓦房店)를 경유하는 육로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咨文을 보냈다.

올해 8월에 同知密直司事 鄭思道を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경사에 가서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더니 喬桐島에 이르러 배가 얇은 곳에 닿아서 구멍이나 물이 새서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에도 密直副使 韓邦彦을 파견하여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는데, 배가 출항하자 갑자기 폭풍을 만나 침몰하였습니다. 小邦에서 경사로 가는 데에 바닷길은 매우 멀고 날씨는 추워지고 물이 얼어 배를 띄우기 어려우니, 신년을 축하하는

7) 『太祖高皇帝實錄』卷57 洪武 3年 10月 2日 丁巳.

8) 『太祖高皇帝實錄』卷68 洪武 4年 9月 28日 丁丑: “戶部言, ‘高麗·三佛齊入貢, 其高麗海舶至太倉, 三佛齊海舶至泉州海口, 並請征其貨.’ 詔勿征.”

9) 박현규, 「고려 하평축사(賀平蜀使)의 수로 교통」, 포은학술총서6권 『포은 정몽주의 외교활동』, 2015, 한국문화사, p.29.

기일을 어길까 두렵습니다. 금주·복주 등에서는 바닷길이 조금 가깝고, 驛路가 개통되어 요동을 경유하면 거의 기일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방언을 파견하여 遼東都司를 거쳐 경사로 가서 신년을 축하하게 하고자 합니다. 청하건대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¹⁰⁾

요동을 경유하여 발해를 건너 경사에 이르는 육로, 즉 산동사행로 개통을 요구한 공민왕에 대해 명태조는 “육로로 와서는 해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일찍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의 본의가 산동 일대의 兵船과 軍馬의 동정을 살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라며 경계하였다. 명태조는 고려의 사신들이 納哈出와 같은 세력들에게 산동의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한방언은 결국 육로 개통을 허락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해로를 이용해 신년이 지난 홍무 5년(1372) 2월 19일 남경에 도착하여 명태조를 알현하였으나 심한 모욕을 당했다. 이에 공민왕은 定遼衛에 張子溫을 파견하여 입국 불허에 항의하는 자문을 보냈다.

“전에 鄭庇를 파견하여 경사에 가서 말을 바치도록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定遼城에 도착하자 守門官이 입성을 불허하면서 말하기를, ‘금번 聖旨에 산동에서 새로이 귀부한 백성들이 번거로울 것이니, 고려 사신들이 그 길로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여 이 때문에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비는 명령에 따라 진헌하러 간 것인데, 현재 그의 말만 들었을 뿐 별도로 관청에서 발급한 신방성 있는 공문이 없으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과연 성지가 그러했다면, 청하건대 성지 전문을 기록하여 回示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장자온이 정료위에 이르니 總兵官이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성지에 고려 사신은 단지 바닷길로 朝京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가져온 자문은 성지가 두려워 감히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¹²⁾

정료위에 보낸 자문 중 “정비는 명령에 따라 진헌하러 간 것인데(庇承差進獻)”라는 내용에 근거하면 고려는 이미 명으로부터 육로 사행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료위 총병관의 말에 따르면 고려에 알리지 않은 또 다른 성지에는 새로 귀부한 요동에 거주하는 산동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육로 대신 바닷길로 조

10) 『高麗史』卷43, 「恭愍王世家」20年 11月 26日 乙亥: “於本年八月, 遣同知密直司事鄭思道, 駕海赴京, 賀明年正, 到喬桐島, 船著淺穿漏, 不得前去. 又於本年九月, 更遣密直副使韓邦彥, 賀正, 開船忽被暴風, 滄沒. 小邦去京, 師隔海甚遠, 天寒冰合, 難以發船, 恐違進賀之期. 金·復等州, 涉海稍近, 驛路可通, 經由遼東, 庶望及期. 今遣韓邦彥, 前往遼東都司, 赴京進賀. 請聞奏施行.”

11)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2年 7月 13日 壬子.

12)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2年 2月 18日 庚寅: “前遣鄭庇赴京, 獻馬, 稱到定遼城, 有守門官, 不許入城曰, ‘今奉聖旨, 山東新附百姓生受, 高麗使臣休這路上來.’ 以此回還. 庇承差進獻, 今聽在口之言, 別無官信明文, 未委虛實. 如果聖旨, 請錄全文, 回示.” 子溫至定遼, 總兵官使謂曰, “聖旨, 高麗使臣, 止教海道朝京. 今齎來咨文, 畏聖旨, 不敢拆看.”

경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명태조가 지정한 바닷길은 요동에서 발해를 건너 등주에 이르는 해로가 아니라 기존에 이용했던 서해를 횡단하는 해로를 말하는 것이다.

산동사행로 개통을 위한 고려의 외교적 노력에 전기가 된 것은 공민왕 21년(1372) 3월 명이 蜀 지역을 평정한 것을 하례하기 위한 정몽주의 사행이었다. 정몽주 일행은 귀로에 杭州灣 북쪽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표류하다가 바위섬에 표착해 13일을 말다래를 베어 먹으며 버티다 태창위의 병사들에게 구조되어 죽음에서 벗어났다.¹³⁾ 명태조는 태창위의 해난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몽주 일행을 남경으로 불러들였으며, 12월에는 바다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당시 태창위에 머물며 귀국을 준비하던 고려 사신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사행로 변경을 명하였다.

작년에 洪氏 성을 가진 사람이 바다에서 탄 배가 파손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바닷길은 지나기 어렵고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그대들에게는 선박과 사공[脚力]을 내어줄 것이니 그대 관인들은 매번 登州로 가서 바다를 건너 3일이면 건너가게 될 것이니, 지금 이후로 바닷길로 올 필요가 없다.¹⁴⁾

정몽주와 함께 사행에 나섰던 正使 洪師範과 38명의 희생으로, 당시 명에 체류하던 고려의 사신들은 처음으로 등주에서 발해를 건너 요동반도를 종단해 공민왕 22년 7월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러나 당시 명태조가 구두로 지정한 해로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고려는 이를 명태조가 산동 길, 즉 육로를 열어준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때문에, 공민왕은 다음 해(1374) 신년 조회를 위해 파견한 密直副使 鄭庇가 왜구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고 있자, 그들을 요동으로 보낸 것이다.

삼가 준행하여 그해 7월 25일에 정비를 시켜 정요위를 거쳐 홍무 7년의 신년 조회를 하도록 하고, 判繕工寺事 周英贊에게 제주의 馬匹을 올리게 했는데, 그 후 정비 등이 돌아와 정료위의 관리가 황제의 성지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억지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중에도, 스스로 위안하기를 진실로 하찮은 성의나마 반드시 전달하기만 한다면 비록 엄금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하였습니다.¹⁵⁾

13) 최낙민, 「圃隱 鄭夢周의 前期 使行 考察」, 『해향도시문화교섭학』, 제26호, 2022.

14) 『高麗史』 卷44, 「恭愍王世家」 22年 7月: “去年姓洪的海面上壞了船隻, 見海上難過有, 許多艱難, 與恁船隻脚力, 教恁官人每往登州過海, 三个日頭過的, 今後不要海裏來我.”

15) 『高麗史』 卷44, 「恭愍王世家」 23年 2月 28日 甲子. “除欽遵外, 當年七月二十五日, 止差鄭庇, 經

공민왕은 조공국의 의무와 성의를 다하기 위해 육로 사행을 감행했지만 정료위에서는 황명을 이유로 입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공민왕은 밀직부사 주영찬을 다시 경사에 보냈지만 11월 주영찬, 金潛과 曹信이 탄 배가 靈光 慈恩島에서 파선하여 모두 익사했으며 禹仁烈과 宋文中 등만 살아서 돌아왔다.¹⁶⁾

공민왕은 홍무 7년(1374) 2월 밀직부사 정비와 판사 우인렬을 파견하여 신년 하례를 하게 하고,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자 많은 선물을 내리시고 이어서 우리 사신[賤价]을 육로로 귀국하게 허락해주셨습니다”¹⁷⁾라며 지난해의 사례를 들며 육로로 조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

옆드려 바라건대 먼 나라를 배려하는 어짊과 도량을 더욱 넓히시어, 충성을 다하러 다가 어려움에 부딪친 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의무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허둥대기만 하는 신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무릇 아뢰고 건의할 일이 있을 때 편리한 육로를 허락해주시면, 신은 삼가 변병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다할 것이며, 항상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¹⁸⁾

요동을 경유하여 발해를 건너 남경으로 가는 육로를 취하고자 한다는 고려의 요청을 명태조가 두 차례나 거절한 이유는 고려가 여전히 북원 세력과 접촉하고 있어 크게 신임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북원의 잔여 세력인 나하추가 요동반도 북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 조정은 요동반도 남부지역의 주요 군사 방어거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오래지 않아 명태조는 고려에 육로를 통한 사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 23년(1374) 6월 18일 정비 등이 경사에서 귀국하며 황제가 직접 쓴 조서와 자문을 받아왔다.

또 성지를 받들었는데, ‘조공하러 오가는 길은 3년에 1번, 해로로 오라.’고 하였습시다(又奉聖旨, ‘朝貢道路, 三年一聘, 從海道來’).²⁰⁾

이때 명태조가 지명한 바닷길은 이전처럼 서해를 횡단하는 ‘해로’가 아니라 발해를

由定遼衛, 進賀洪武七年正朝, 又差判繕工寺事周英贊, 進獻濟州馬匹, 去後鄭庇等回言, 定遼衛官, 推稱無聖旨, 勒令回還. 臣進退無憑, 倉黃自謂, 苟得微誠之必達, 雖干嚴禁而何辭?”

16)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2年 11月 5日 壬寅.

17)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2年 10月 17日 乙酉.

18)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3年 2月 28日 甲子: “伏望, 推柔遠之仁, 廓包荒之度, 憐臣効忠, 而動遭於狼跋, 察臣述職, 而尙迷於駿奔. 凡有奏陳, 許從便道, 臣謹當益竭虔於藩翰, 恒祝壽於岡陵.”

19) 陳尙勝, 「明朝初期與朝鮮海上交通考」, 『海交史研究』, 1997年 1期, p.44.

20)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3年 6月 18日 壬子.

건너는 ‘해로’, 즉 고려가 줄곧 요구하던 육로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공민왕이 같은 해 9월 2일 보낸 육로를 열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林密과 蔡斌 등이 명 경사에 돌아가게 되자, 밀직부사 金義를 파견하여 말 300필을 정요위로 수송하게 했다. 또 동지밀직사사 장자운을 보내 조공 길을 통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게 하고, 아울러 관복을 청하였다. 조공 길을 통하게 해준 데 대해 사례하는 표문을 올렸다.²¹⁾

그러나 육로(산동로)는 열렸지만 9월 공민왕이 洪倫 등에게 시해당하고, 김의가 명의 사신 채빈을 살해하고 북원으로 달아나면서 고려와 명의 외교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禡王이 등극하고 북원과의 외교가 회복되자 명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명으로 사신으로 갔던 金九容 등이 구금당하고 사신길도 끊어졌다.²²⁾

이후, 북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려의 협조가 필요했던 명이 자발적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하긴 했지만, 양국 관계는 절대 순조롭지 않았다. 정몽주는 우왕 8년(1382) 4월과 11월에 경사로 사행을 떠났으나 요동에서 입경을 허락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고, 다음 해 정월에도 요동에 도착했지만 진현하는 예물만을 전하고 돌아와야 했다. 당시 양국 사이에는 말썽이 많아서 진노한 명태조가 장차 고려를 군대로 위협하고 세공을 더 늘리며, 사신으로 간 金庾와 洪尙載 등을 먼 곳으로 杖流시키자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사행 가기를 꺼리고 있었다.²³⁾ 그러나 명의 책봉을 받아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던 우왕은 1384년 정몽주에게 聖節을 축하하고 왕위 계승 및 공민왕의 시호를 요청하는 사명을 부여하여 남경에 파견하고자 하였다.

임금의 명은 물불도 피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천자를 뵈러 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남경까지는 거리가 모두 8000리이니, 渤海에서 순풍을 기다리는 날을 제외하면 실제 90일의 노정입니다. 지금 성절까지 겨우 60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가령 순풍을 기다리는 날이 열흘이라면 남는 날이 겨우 50일뿐이니, 이것이 신이 한스러운 바라고 하였습니다.²⁴⁾

21) 『高麗史』卷44, 「恭愍王世家」23年 9月 2日 甲子: “九月 甲子林密·蔡斌等, 還京師, 遣密直副使 金義, 領馬三百匹, 送定遼衛. 又遣同知密直司事張子溫, 謝通朝貢道路又請冠服. 謝通道路表.”

22) 鄭道傳, 『三峯集』卷八, 「附錄·教告文」: “後金庾洪尙載金九容等入朝, 皆被拘留, 朝聘道絕.”

23) 鄭道傳, 『三峯集』卷八, 「附錄·事實」: “甲子夏, 又赴咸州. 七月, 以典校副令, 爲書狀官, 從聖節使 鄭夢周入朝京師, 請承襲及諡. 時國家多釁, 帝震怒, 將兵于我, 增定歲貢, 杖流陪臣金庾洪尙載等于遠州. 在廷之臣, 憚莫肯行.”

24) 『圃隱集』卷4, 「圃隱先生年譜攷異」: “君父之命, 水火尙不避, 況朝天乎. 然我國去南京凡八千里, 除候風渤海, 實九十日程. 今去聖節纔六旬, 脫候風旬浹則餘日僅五十, 此臣恨也.”

이미 여러 차례 육로로 사행에 나섰던 정몽주는 개경에서 남경에 이르는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여 밤낮을 쉬지 않고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 성절의 날짜에 맞출 수 있었다. 우왕이 보낸 표문을 받은 명태조는 날짜를 헤아려 보고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했고, 정몽주가 12년 전 ‘賀平蜀使’로 왔다가 해난사고를 당한 후 자신의 주선으로 등주로 귀환한 사실을 기억했다. 명태조는 정몽주를 특별히 위무하고 예부에 명하여 너그럽이 禮待하였고,²⁵⁾ 그를 가상히 여겨 비로소 조회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고려의 사신들도 석방하게 되었다.²⁶⁾

3. 山東 ‘遼靄의 軍容’과 ‘登萊의 景物’

우왕 10년(1384) 뜻하지 않은 사행길에 나서야 했던 정몽주는 일정이 촉급하여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齊魯와 吳楚에 관한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년 뒤, 다시 사행길에 나선 정몽주는 요동을 거쳐 旅順口에서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 등주에 도착했고, 書狀官 韓尙質에게 “遼靄를 지나올 땐 軍容이 장엄하더니, 登萊로 들어서니 경물이 다채롭구나.”²⁷⁾라고 하며 발해를 경계로 ‘海北 遼靄’과 ‘海南 登萊’로 나뉜 山東의 모습을 개괄하였다

1) 海北 山東 ‘遼靄의 軍容’

우왕 12년(1386) 2월, 개성에서 출발한 정몽주는 고려의 門戶이자 중요한 關門인 義州에서 말을 점검하고, 압록강을 넘어 요동 땅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시로 사행을 기록하였다.²⁸⁾ 정몽주 일행은 요동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구축된 명의 군사요충지 蓋州衛(現 遼寧蓋縣), 復州衛(現 遼寧瓦房店)²⁹⁾, 金州衛(現 遼寧金縣) 등을 경유하여

25) 『圃隱集』 卷4, 「圃隱先生年譜攷異」: “帝覽表畫日曰, 爾國陪臣, 必相托故不肯來, 日迫乃遣爾也. 爾得非往者以賀平蜀來者乎. 公悉陳其時船敗狀. 帝曰, 然則應解華語, 特賜慰撫, 勅禮部優禮以送.”

26) 鄭道傳, 『三峯集』 卷八, 「附錄·事實」: “帝嘉之始許朝聘, 行人獲釋.”

27) 『圃隱集』 卷一, 「復州館中井」: “昨日張帆涉海波, 故園回首已天涯. 地經遼靄軍容壯, 路入登萊景物多. 客子未歸逢燕子, 杏花纔落又桃花. 同來幸有韓生在, 每作新詩和我歌.”

28) 『圃隱集』 卷一, 「到義州點馬渡江」: “義州國門戶, 自古重關防. 長城何年起, 屈曲隨山岡. 浩浩靺鞨水, 西來限封疆. 我行已千里, 到此仍彷徨. 驅馬獻天廐, 浮渡看騰驤. 主人爲置酒, 吹笛到夕陽. 適有驛使至手奉御醞香, 飲已下羅拜, 咫尺對君王. 明朝過江去, 鶴野天茫茫.”

29) 『圃隱集』 卷一, 「復州館中井」, 「復州驛夜雨」, 「復州食櫻桃」.

여순구에 도착하였고, 귀국 길에는 이 길을 왕래하며 보고 들은 것을 시로 남겼다.

여순구는 산둥반도와 직접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며 산둥과 가장 많은 무역과 교류가 진행되는 곳으로 ‘遼東海運’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명이 요동을 정벌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군항으로 기능하였다.³⁰⁾ 명태조는 홍무 18년(1385)부터 본격적인 요동 공략에 나섰고, 이년 뒤에는 20만 병력을 동원하여 북원의 納哈出을 평정하였다. 명나라 군대는 여세를 몰아 이듬해에는 脫古思帖木兒가 이끄는 북원의 근거지를 토벌하여 10만여 명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하며 북벌을 완수하였다.³¹⁾ 정몽주가 사행에 오른 홍무 19년, 여순구와 요습 땅에는 본격적인 요동 정벌을 위해 전국각지에서 선발된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들이 집결해 있었고,³²⁾ 허물어진 城池를 수축하고 군량과 군마를 비축하는 등 군용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浪湧煙沈不見津	물결 솟고 안개 짙어 나루터는 보이지 않는데
鐵山千古導行人	저 철산이 천고토록 항해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네.
羞將白髮經過遠	백발을 하고 멀리서 지나감이 부끄럽지만
喜遇蒼顏指點頻	노년에 자주 가리켜 보임은 기뻐할 만하네.
形勢北來仍嶮峩	북쪽에서 달려온 형세는 그대로 우뚝하고
峯巒東走尚逡巡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는 오히려 멈춰 섰네.
如今峽口多舟楫	지금 항구 어귀에 온갖 배들 많은 것은
天子興師淨塞塵	천자가 군사 일으켜 변방을 정벌하기 위함이라네. ³³⁾

우왕 12년 5월, 사신의 책무를 다하고 귀국길에 오른 정몽주는 등주에서 배를 타고 높은 파도와 짙은 안개를 헤치며 북방해로[老鐵山航路]를 항해했다. 멀리 요동 반도 끝에 우뚝 솟은 산세를 마주한 그는 오랜 세월 이 항로에서 철산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직접 확인하였다. 여순구에 도착한 정몽주는 병사를 가득 태운 전함, 군량과 군마 등 군수 보급품을 나르는 수많은 배로 군용을 과시하는 항구를 돌아보며 요동 정벌을 위한 군사작전이 임박했음을 확신하였다. 늦은 봄비에 막혀 旅順驛에 머물러야 했던 정몽주는 역참을 관장하는 군사 실무관들과 교류하고, 戍樓에서 들려오는 처량한 畫角 소리를 들으며 장차 진흙탕길로 바뀔 귀로에 말이 지칠까 근심하

30) 홍무 4년(1371), 명태조 주원장은 馬雲과 葉旺 두 장군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蓬萊에서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 獅子口에 상륙하여 요동 지역을 수복하게 하였다. 이때 해상에서의 여정이 순리로웠기에 獅子口라는 지명을 ‘旅順口’로 바꾸었다.

31)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해안, 2007, p.30.

32) 鄭道傳, 『三峯集』 卷三, 「贈任鎮撫詩序」: “今道傳從宰相鄭評理, 奉表賀天壽聖節, 路過遼東, 得謁總兵官, 其宏量偉器, 亦今世之方叔召虎也. 退見賓客, 借籌尊俎之間, 草檄帷幄之中, 以折衝千里之外, 固多士之選.”

33) 『圃隱集』 卷一, 「鐵山」.

었다.³⁴⁾

여순구에서부터 말과 수레를 이용해 북상하던 정몽주는 북주위와 개주위를 지나며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고 마음 아파했다. 개주성은 원 지정 19년(1359) 농민 봉기군이 요동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에 호응한 주민들에 의해 함락되었고, 3년 뒤에는 紅巾軍을 진압하기 위한 고려와 원의 연합군에 파괴되었다. 이때 이미 현지 백성들은 전란을 피해 사망으로 흩어졌다.

唐帝親臨戰 당 태종이 직접 전쟁에 임했던 곳
相傳說蓋牟 전해 오는 말에 개모성이라 하네.
廢興知幾遍 흥망성쇠가 몇 번인지 알 수 있으랴만
登覽不禁愁 성에 올라 둘러보며 시름을 금치 못하네.
民自往時散 백성은 옛날에 벌써 흩어져 버렸고
城從今日修 성벽은 오늘날에야 수리되고 있네.
盛朝家四海 성조가 사해를 한 집안으로 만드니
遺俗可無憂 풍속이야 걱정할 것 없지 않을까.³⁵⁾

명태조는 홍무 4년 개주위를 설치하고, 다음 해에는 허물어진 개주성을 재건하도록 명하였다. 홍무 18년(1385)에는 靖寧侯 葉新 등의 지휘하에 金州, 蓋州, 復州 三衛의 城池를 수축하도록 명하고, 客館을 건설하고 버드나무를 심어 요동을 지나는 사신들이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³⁶⁾ 2년 만에 다시 개주를 찾은 정몽주는 새롭게 확장된 蓋牟城에 올라 당 태종 이후의 흥망성쇠를 회고하며,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였다.

요동을 경략하는 과정에서 명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안정적인 군량의 보급이었다. 명태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무 4년부터 蘇州 등 東吳 지역에서 수확한 벼를 매년 한 차례 해운을 통해 요동에 군량으로 공급하도록 명하였다. 遼河를 지나며 군량을 운송하는 수천 척의 군량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을 가득 메운 장관을 목격한 정몽주는 이를 짧은 시 한 수에 담았다.

年年遼水上 해마다 요하의 물길을 통해
粳稻自東吳 동오 땅에서 메벼를 실어 오네.
萬里連烽燧 만 리 조운길엔 봉수대가 연이었고

34) 『圃隱集』 卷一, 「旅順驛阻雨」.

35) 『圃隱集』 卷一, 「宿蓋州」.

36) 『圃隱集』 卷一, 「蓋州館柳」.

千帆接觸艫 천 척의 돛단배는 앞뒤가 잇닿았네.
 主憂因遠略 주상은 변방의 경략을 근심하지만
 師飽只相娛 군사는 배불러 서로 즐길 뿐이네.
 安得增屯種 어찌하면 둔전의 경작을 늘려서
 於焉足所需 여기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³⁷⁾

정몽주가 요동을 지나던 홍무 19년, 納哈出을 정벌하기 위해 동원한 요동정요위 등 12衛와 武德衛의 관군 수는 장수와 사관이 1,515명이고 병사가 73,038인, 군마가 13,522필이었다.³⁸⁾ 매 장수와 병졸의 月糧을 一石으로 계산한다면, 이 해 필요한 군량은 894,708석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³⁹⁾ 직전 해에도 요동 정벌군에게 군량을 공급하고자 조운선을 이용하여 75만여 석을 요동으로 운송하였다.⁴⁰⁾ 때문에, 蘇州의 太倉衛-登州-旅順口-海州衛의 牛家莊에 이르는 조운은 그 군량 수송의 규모가 클 때는 70만 석, 수송선박은 2, 3천여 척이었으며 해운에 참가한 병사만 해도 1만 명이 넘었다.⁴¹⁾

당시 고려는 왜구의 창궐로 인해 바다를 통한 漕運體制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몽주는 조운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동오 지역에서 요동에 이르는 일만 리 바닷길에 봉수대를 연이어 건설하고, 조운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나라의 장엄한 군용을 짧은 시로 기록한 것이다. 또한 군량 운송의 어려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명태조가 초기부터 ‘屯田令’을 발표하여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은 강한 병사와 충분한 식량에 있음을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고, 둔전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명태조가 조운을 이용해 충분한 군량을 보급하여 군졸들을 배불리 먹었다고는 하나,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의 삶은 언제나 힘겨운 것이었다. 수시로 모래바람이 일고, 밤이면 들짐승이 횡행하는 광막한 요동 벌판에서 군졸들은 힘겨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庾馬荒城路 여윈 말로 지나는 황폐한 옛 성 길
 低回行色微 배회하는 이내 행색 초라하기만 하네.

37) 『圃隱集』 卷一, 「遼河漕運」.

38) 『太祖高皇帝實錄』 卷179 洪武 19年 8月 辛丑: “核遼東定遼等十二衛并武德衛征進官軍之數官一千五百一十五人軍七萬三千三十八人馬一萬三千五百二十二匹.”

39) 張士尊, 「洪武年間遼東海運論述」, 『鞍山師專學報』, 1993年 第2期, p.25.

40) 『太祖高皇帝實錄』 卷173 洪武 18年 5月 己丑: “命右軍都督府一都督張德督, 運糧米七十五萬二千二百余石往遼東.”

41) 星斌夫, 『明清時代交通史の研究』, 山川出版社, 1971, pp.273-289. 남의현, 「遼東都司 防禦體系와 支配力の 限界」, 『東洋史學研究』, 제93집, 2005, p.11. 재인용.

施風帶沙起 회오리바람은 모래를 말아 올리고
 片雨遂雲飛 소나기는 구름을 쫓아 날아가 버리네.
 日落狐狸走 해가 지자 여우와 이리 내달리고
 叢深鳥雀歸 수풀이 깊어 새들이 돌아오네.
 哀哉北征卒 애처롭다 북쪽 정벌 나선 군졸들이
 車下宿相依 수레 아래 묵으며 서로 의지하고 있네.⁴²⁾

사행길에 지친 정몽주는 여윈 말을 타고 황폐한 熊嶽古城을 지나다 군막도 없이 수레 아래에서 모래바람과 들짐승을 피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동 정벌군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당시 정몽주는 고려의 북방 변경을 수호하기 위해 동원된 많은 병사와 왜구의 침구를 막기 위해 차출된 수많은 백성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2) 海南 山東 ‘登萊의 景物’

발해의 거친 파도를 건너 등주에 무사히 도착한 정몽주는 서장관 한상질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로 가득했던 요습 땅과는 달리 “등래에 들어서니 경물이 다채롭다(路入登萊景物多)”는 소회를 밝혔다. 정몽주가 말한 등주와 래주의 ‘景物’은 단지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자연풍광만이 아니라 齊魯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인물,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발해의 남쪽에 위치한 등주는 래주와 함께 齊魯 지역을 대표하는 해항도시로 唐代에는 동남 연해의 泉州, 揚州, 明州와 함께 중국 4대 항으로 불리며 ‘동방의 진주’라는 미칭을 얻었다. 『新唐書』 「地理志」에는 “등주에서 바다를 통해 고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길(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 『宋史』 「高麗傳」에는 “고려와의 왕래는, 모두 등주에서 시작했다(高麗往返, 皆自登州)”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등주는 한반도와 빈번한 교류의 역사를 가진 북방의 주요 대외 교역항이자 군항으로 기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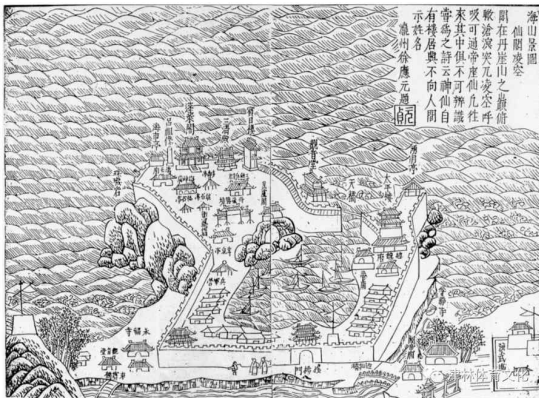
명이 건국한 이후에도 요동반도 이북 지역은 여전히 원의 잔존세력들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명태조는 고려의 사신들이 등주를 지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원의 유익이 귀부한 이후 요동에 대한 지배력을 점차 확장한 명태조는 고려의 사신들이 서해를 건너다 익사하는 등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등주를 통과하는 안전한 항로를 임시로 허용하기도 했다. 명태조가 홍무 9년(1376) 등주를 府로 승격시

42) 『圃隱集』 卷一, 「熊嶽古城」.

키고, 治所를 蓬萊에 설치하는 등 행정구역과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등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등주를 고쳐 부로 삼고 蓬萊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황상이 등주와 래주는 모두 큰 바닷가에 있으며 고려·일본과 왕래하는 중요한 길목이니 府治를 세우고 兵衛를 증강하지 않으면 그를 鎮戍하기에 부족할 것이라 하여 드디어 내주부의 文登·招遠·萊陽 세 현을 떼어다가 등주에 더하여 부로 삼고 그 소속으로 봉래현을 두었으며, 또한 靑州府의 昌邑·即墨·高密 세 현을 내주부에 보강하였다.⁴³⁾

명태조가 등주를 부로 승격시킨 표면적인 이유는 이곳이 고려, 일본과 통하는 왕래의 요충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행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외교적인 조치만은 아니었다. 명이 등주에 해안 방위의 임무를 맡은 기관과 병사를 증강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왜구의 잦은 침구였다. 庚寅年(1350)부터 고려 전역에 왜구가 다시 출몰했고, 다음 해에는 중국의 산둥 지역에도 왜구가 침범했다. 명이 건국한 이후에도 등주와 래주, 교주 등 산둥 지역에 왜구들이 침범하여 해안 지역민의 생활을 위협했다.



<그림1> 萬曆『登州府志』「備倭城圖」

등주를 부로 승격시킨 해 5월, 봉래의 指揮 謝觀이 해상 방어와 해운의 필요를 위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畫河 하구의 “바닥에 쌓인 모래 등을 파내어 바닥을 정비하고, 북쪽에 수문을 쌓아 바닷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挑浚繞以土地, 北砌水門, 引海入城)” 인공 군항을 건설할 것을 상소하였다. 사관의 건의가 중시되어 봉래성 북쪽 城牆과 연결하여 水城을 건설하고 蓬萊水城, 登州水城이라 불렀다. 이후 왜구를 대비

하기 위해 이곳에 帥府를 두었기 때문에 備倭城이라고 불렀다.⁴⁴⁾

홍무 19년 2월, 개성을 떠나 사행에 오른 정몽주는 요습을 지나 여순구에서 바다

43) 『太祖高皇帝實錄』卷106 洪武 9年 5月 29日 壬午：“改登州爲府，置蓬萊縣。時上以登萊二州，皆瀕大海，爲高麗·日本往來要道，非建府治增兵衛，不足以鎮之，遂割萊州府文登·招遠·萊陽三縣，益登州爲府，置所屬蓬萊縣，復以靑州府之昌邑·即墨·高密三縣，補萊州府。”

44) 萬明，「明代登州與海洋文明：城市空間的解讀」，耿昇·劉鳳鳴·張守祿 主編，『登州與海上絲綢之路』，人民出版社，2009，p.17.

를 건너 3월 19일 등주에 도착해 登州府城 모퉁이 한쪽에 있는 공관에 묵게 되었다.⁴⁵⁾ 일행 중 郭通使와 金押馬가 탄 배들이 높은 파도에 막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며 기다린 것이다. 첫 번째 사행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등주를 방문한 정몽주는 새롭게 건설된 웅장한 봉래수성에 배를 정박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는 명태조가 고려의 사신들이 산동의 군사정보를 수집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회피한 것으로 추측된다.⁴⁶⁾

登州望遼野 등주에 도착해 바다 건너 요동 별관 바라보니
 邈矣天一涯 아득하구나! 하늘 저 끝에 있네.
 溟渤限其間 발해가 그 사이를 경계 지워
 地分夷與華 땅은 동이와 중화로 나뉘었네.
 我來因舟楫 내가 올 때 배와 노를 이용했으니
 利涉還可誇 무사히 건너온 것이 도리어 뿌듯하네.
 昨日海北雪 어제 바다 북쪽에는 눈이 내리더니
 今朝海南花 오늘 바다 남쪽에는 꽃이 피었네.
 夫何氣候異 어찌 이리도 기후가 다르던가
 可驗道路賒 길이 멀고 땀을 징험할 만하네.
 客懷易悽楚 나그네 회포는 처량하기 쉽고
 世事喜蹉跎 세상 일은 어긋나기를 좋아하네.
 偕行二三子 함께 건너오던 두세 사람이
 相失迷風波 서로 떨어져 풍파에 헤매고 있네.
 終夜苦憶念 밤새도록 괴롭게 걱정하다가
 耿耿聞鼓搗 애타는 마음으로 북소리 듣네.
 晨登蓬萊閣 새벽 일찍 봉래각에 올라 보니
 浪湧山嵯峨 솟구치는 파도가 산처럼 드높네.
 歸來就孤館 돌아와 외로운 공관에 들어
 欹枕空吟哦 베개에 기대어 부질없이 읊조리네.

정도전은 이 시를 읽고 정몽주가 “발해를 건너 蓬萊閣에 올라 요동의 광막한 들을

45) 李崇仁은 바람을 피해 등주에 체류하며 지은 시를 통해 공관이 등주성 모퉁이 한쪽에 있다고 적었다. 李崇仁, 『陶隱集』 卷2, 「阻風留登州次壁上詩韻」: “留滯城隅僻, 波濤木道通.”

46) 1624년 바닷길을 통해 조공에 나섰던 洪翼漢은 『朝天航海錄』에서 “그 아래에는 큰 호수가 있고, 안으로는 여러 냇물이 모여들고 밖으로는 멀리 바다와 통했다. 성의 한편을 차지하여 戰艦이 드나들어 黃龍과 靑雀이 앞뒤를 연달았고 1,000만 개 돛대가 그 가운데 운집하였다.”라고 수성을 기록하고 있다.

바라보고, 바다의 우람한 파도를 보고는 그 가슴이 부풀어서 말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 해도 참지 못하였을 것이다.”⁴⁷⁾라고 높이 평하였다.

정몽주는 봉래각에 올라 발해를 경계로 땅이 동이와 중화로 나뉘고, 해북에는 눈이 내리지만 해남에는 꽃이 핀다고 하며 요습과 등래라는 이질적인 공간이 합쳐진 산동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또한 시의 후반부에서는 발해의 높은 파도에 막혀 통사와 압마를 태운 배가 도착하지 못하자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행 책임자의 초조함도 토로했다. 첫 번째 사행에서 한바다를 지나다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많은 동료를 잃었던 정몽주는 다음 날 새벽 북소리가 울리고 수성의 振揚門이 열리자 서둘러 丹崖山 정상에 우뚝 솟은 봉래각에 올랐다. 산처럼 높은 파도가 굽구치는 발해를 바라본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공관으로 돌아와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마음을 시를 지으며 달랬던 것이다.

錢謙益의 『列朝詩集』에는 『圃隱集』에 수록되지 않은 정몽주의 시가 몇 편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感遇」 4수 중 제 2수는 당시 바다에 불어 닥친 북풍과 파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北風何慘烈 북풍은 어찌 이리 매서운가
吹折松與柏 소나무 잣나무 가지를 꺾는구나.
溟海亦震蕩 망망한 바다도 요동치고
魚龍失其宅 어룡도 제 집을 잃었구나.
天地將窮閉 천지가 다하여 닫히려고 하니
聖賢徒歎息 성현도 다만 탄식할 뿐이구나.
黃虞邈難逮 황帝와 舜의 시대는 아득해 미치기 어려우니
行矣西山客 서산의 객이 되어 떠도는구나.⁴⁸⁾

비록 3월이지만 요습 땅에서 몰아치는 매서운 북풍은 봉래수성의 절벽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를 꺾을 만큼 강력했고, 산처럼 높은 파도는 망망한 바다를 뒤집어 물고기와 용도 집을 잃고 방황하게 했던 것이다.

정몽주가 시로 기록한 등래의 경물은 해안 방위를 위해 명나라가 건설한 봉래수성이 아니라 司馬遷의 『史記』에서 읽은 秦始皇과 徐市, 田橫과 500 義人の 고사와 관련된 蓬萊閣과 之罘城, 田橫島와 鳴呼島였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정몽주는 남경으로 돌아가는 명의 禮部主事 林實에게 보낸 시에서 “아침 해가 비추

47) 鄭道傳, 『三峯集』 第3卷, 「圃隱奉使藁序」: “渡渤海登蓬萊閣, 望遼野之廣邈, 觀海濤之洶湧, 興懷敘言, 不能自己, 於是渡海宿登州公館詩.”

48) 錢謙益 撰集, 許逸民·林淑敏 點校, 『列朝詩集』 「閏集」 第六, 「感遇」, 中華書局, 2007, p.6811.

어 扶桑 떨어 빛내고, 바다 파도 솟구쳐 붉은 산호 드러내며, 푸른 구름 뭉게뭉게 광채가 피어나는데, 그 아래에 우뚝 솟은 봉래궁이 있다”⁴⁹⁾고 상상했었다. 그러나 정몽주가 봉래각에서 노래한 것은 이와 다른 분위기였다.

採藥未還滄海深 약 캐러 간 사람 돌아오지 않고 창해만 깊으니
秦皇東望此登臨 진시황이 동쪽 바라보며 이 누각에 올랐었다네.
徐生詐計非難悟 서생의 거짓 계책은 알기 어려운 게 아니건만
自是君王有欲心 본래부터 군왕에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三神山 중의 하나인 봉래는 신선들이 사는 신비한 섬으로, 진시황이 서불을 보내 장생불사의 약을 구하고자 했던 곳이다. 정몽주는 단애산의 붉은 석벽 위에 우뚝하게 자리 잡은 봉래각에 올라 진시황과 서불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막대한 국고만 낭비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진시황의 이야기를 빌어 군왕의 헛된 욕심과 허망한 꿈을 비판하는 성리학자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몽주는 봉래각 뿐만 아니라 전횡도를 시로 남긴 최초의 고려인이었다. 진시황에 반기를 들고 齊 나라를 다시 일으킨 전횡은 劉邦이 천하를 평정하자 賓客 500명과 산동의 섬에 숨어 살았다. 이후, 전횡은 유방의 부름을 받아 洛陽으로 가던 중 도리를 지켜 굴욕을 받지 않기 위해 자결하였고, 그를 따르던 빈객들도 모두 따라 자결했다. “전횡은 고상한 절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빈객들이 그의 의리를 흠모해 따라 죽은 것은 어찌 더할 수 없는 현명함이 아니리오! 나는 이런 까닭에 그를 열전에 넣었다.”⁵⁰⁾라는 『史記』의 내용을 떠올린 정몽주는 전횡도를 찾아 그들의 의기를 찬양하였다.

五百人爭爲殺身 오백 사람 앞다투어 그를 위해 자결하니
田橫高義感千春 전횡의 드높은 의기가 천추를 감동시키네.
當時失地夫何責 그 당시 땅 잃은 것이야 어찌 책망하리오
大漢寬仁得萬民 한나라가 관대하여 만백성을 얻은 것이니.⁵¹⁾

三傑徒勞作漢臣 삼걸은 헛되이 한나라 신하 되었으니
一時功業竟成塵 당시의 공업이 끝내 티끌 되고 말았네.
只今留得鳴呼島 지금까지 오호도만 홀로 남아 있어서

49) 『圃隱集』 卷2, 「重贈林主事」: “曉日照耀扶桑叢, 海波沸出珊瑚紅. 綠雲冉冉動光彩, 下有突兀蓬萊宮.”

50) 司馬遷, 『史記』 卷九十四, 「田儋列傳」: “田橫之高節, 賓客慕義而縱橫死, 豈非至賢! 餘因而列焉.”

51) 『圃隱集』 卷一, 「田橫島」.

長使行人淚滿巾 언제나 행인들 눈물 가득 흘리게 하네.⁵²⁾

등주부성을 떠난 정몽주는 蓬萊驛을 지나 龍山驛에서 고려의 사행단을 맞이하는 현지 관청의 응대를 시로 남겼다. 송대에는 등주에 高麗館을 설치하여 사절들을 접대하는 등 고려 사신에 대한 대접이 후했고, 조정에서는 등주에서 고려 사절을 접대하느라 부족해진 비용을 따로 지원했을 정도였다.⁵³⁾ 때문에 송 조정은 고려 사신들에 대한 후한 응대를 비판하고, 과다한 접대경비 지출을 반대하는 관료들이 적지 않았다. 고려의 문인들이 존경해마지 않았던 蘇東坡는 고려관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비판하는 시를⁵⁴⁾ 남겼을 뿐만 아니라, 고려 사신에 대한 후대에 반대하는 奏議文을 7편이나 올렸다. 정몽주는 고려의 사신들을 접대하는데 드는 경비는 모두 백성들의 膏血⁵⁵⁾이라 비판한 소식의 주의문을 떠올렸는지 현지 관청과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과심과 함께 감사함을 시에 담았다.

自愧因王事 부끄럽구나 나랏일 한답시고
往來勤館人 오가며 관인들을 수고롭게 하네.
登樓望行色 누각에 올라서 행색을 바라보다
撾鼓出迎賓 북 치며 나와서 빈객을 맞이하네.
列俎供珍饌 그릇을 나열하여 진수성찬 제공하고
高床設累茵 침상을 높게 하여 겹겹 이불 펼쳐 주네.
誰言爲客苦 나그네 되어 괴롭다 누가 말하랴마는
不及在家貧 가난해도 내 집이 좋은 것만 못하네.⁵⁶⁾

‘동방 이학의 시조’라 불리며 방대한 독서량을 가진 인물로도 잘 알려진 정몽주는 唐宋의 역사에도 밝아 래주를 지날 땐 海神廟를 찾았다. 래주의 掖縣에서 난을 당해 적병에게 쫓기던 趙匡胤이 홀로 海水祠에 숨어들었다가 무사히 탈출하였고, 이후 宋의 황제로 등극하자 東海神廟를 중수하였다고 전해지는 장소이다. 송태조 이후 많은 황제들이 찾아 헌향했던 해신묘를 찾은 정몽주는 새롭게 건국한 명나라도 동해신을 모시는 제사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醉翁談錄』에 수록된 「王魁負心桂英死報」를 떠올리며 은혜를 저버린 王魁의 부도덕함을 힐난하는 시를 지었다.

52) 『圃隱集』卷一, 「嗚呼島」.

53) 『續資治通鑑』卷97, 天禧5年: “六月乙巳朔, 別給登州錢十萬, 充高麗朝貢使之費.”

54) 蘇軾, 『蘇東坡全集』, 「元豐七年有詔京東淮南筑高麗亭館密海二州騷」: “簷楹飛舞垣牆外, 桑柘蕭條斤斧餘. 盡賜昆耶作奴婢, 不知償得此人無.”

55) 蘇軾, 『蘇東坡全集』, 「論高麗買書利害筭子三首」其一: “所得貢獻, 皆是玩好無用之物, 而所費皆是帑廩之實, 民之膏血.”

56) 『圃隱集』卷一, 「龍山驛」.

海神遺廟壓滄茫 해신의 옛 사당이 바닷가에 우뚝하니
 天子時修爲降香 천자가 때로 수리하고 향을 내리시네.
 自是聖朝崇祀典 본래 성조에서 제사를 숭상한 것이니
 王魁往事也荒唐 왕괴의 지난 일은 또한 황당할 뿐이네.⁵⁷⁾

정몽주는 면면히 이어오는 등래의 역사 문화 경관 이외에도 “모래 자국을 살피며
 潮水를 묻고, 구름의 기운을 보고 바람을 점쳐”⁵⁸⁾ 안전한 항해를 염원하는 현지 뱃
 사람들이 모시는 해신에 대해서도 시를 남겼다. 등주를 떠나 沙門島에 닻을 내리고
 항해에 적합한 순풍을 기다리던 정몽주는 현지인들로부터 신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 직접 神女祠를 찾아 헌주하였다.

神女祠何處 신녀의 사당이 어디에 있는가
 沙門海上岑 사문도 바닷가의 산봉우리라네.
 戎車連鶴野 전쟁하는 수레는 요동에 이어졌고
 貢道接鷄林 조공하는 길은 계림에 잇닿았네.
 利涉由靈貺 무사히 건너온 것은 신령이 내린 복이고
 徽封自聖心 아름답게 봉한 것은 황제의 마음이라네.
 泊舟來酌酒 배를 대고 올라와서 술을 따르고는
 稽首冀來歆 머리를 조아리며 흠향하길 바라네.⁵⁹⁾

사문도의 신녀사는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媽祖를 모신 사당이다. 재해와 환난을
 막아주는 마조의 영험을 기려 명태조는 홍무 5년(1372)에 ‘昭孝純正孚濟感應聖妃’라
 는 작위를 내리고 관리를 보내 제사를 올렸다.⁶⁰⁾ 정몽주는 마조묘를 찾아 향을 사르
 고 술을 올리며 지나온 항해의 안전에 감사하고, 兵車로 가득한 요습 땅을 지나야만
 하는 귀로의 평안과 무사를 기원하였다. 정몽주는 고려의 사신들 가운데 중국인의
 해신인 마조신앙에 주목한 첫 번째 인물로, 마조신앙을 한반도에 전하는 데 큰 공헌
 을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⁶¹⁾

등래 땅을 지나며 “머느리는 뽕잎을 따러 가고 아들은 밭갈이를 나간 후, 울타리
 가에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쬐며 맑은 날씨를 기뻐하는”⁶²⁾ 팔십 노인을 만난 정몽

57) 『圃隱集』卷一, 「萊州海神廟」.

58) 鄭道傳, 『三峯集』第2卷, 「五言律詩·登州待風」: “沙痕問潮水, 雲氣占天風.”

59) 『圃隱集』卷一, 「沙門島」.

60) 佚名, 『天妃顯聖錄』, 臺灣銀行經濟研究室所編印, 1960, pp.7-8.

61) 袁曉春, 「高麗使節鄭夢周登州史迹考」, 『연변대학학보』, 제43권 제1기, 2010, p.67.

62) 『圃隱集』卷一, 「山東老人」.

주는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 가는 산둥 지역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삭막한 요습의 전쟁터로 동원된 뒤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는 지아비를 위해 따뜻한 솜옷을 짓고, 애절한 마음을 비단에 수놓아 서신과 함께 보내고자 요동으로 가는 길손을 찾아 나루터를 헤매는 부인들을 목격한 정몽주는 부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두 편의 시를 남겼다.

織罷回文錦字新 회문을 짜고 보니 비단 글자가 새로운데
題封寄遠恨無因 봉함하여 멀리 부치려니 인편 없어 한스럽소.
衆中恐有遼東客 못사람 중에 혹여 요동 가는 길손 있을까 하여
每向津頭問路人 매양 나루터에 나가 행인들에게 묻는다오.⁶³⁾

등래의 나루터를 지나면서 정몽주의 눈길은 요동 정벌군으로 끌려간 남편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부인과 남겨진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수레 아래에서 서로에게 의지하여 추위를 견디고, 멀리서 들려오는 화각 소리에 애간장을 녹이며,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수자리에 나선 요동의 정벌군들을 목격했던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루터에서 만난 부인들을 보며 지아비와 형제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고통을 체감한 정몽주는 산둥이 아직도 전쟁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나오는 말

宣和 5년(1123)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徐兢은 『詩經』의 “두루 묻고 생각하네(周爰咨詢)”⁶⁴⁾라는 시구로 스스로 경계하고, 널리 일을 탐문하는 것이 사신의 직분이라 여기며 이목이 닿는 대로 여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宣和奉使高麗圖經』을 완성하였다.⁶⁵⁾ 우왕 12년 남경으로 사행을 떠났던 정몽주도 산둥을 지나며 ‘요습 땅의 군용’과 ‘등래의 경물’을 두루 살피고, 大運河 주변의 여러 도시와 皇都 남경의 풍광과 풍속을 탐문하며 기록한 시를 모아 『圃隱奉使藁』를 완성했다.⁶⁶⁾

63) 『圃隱集』卷一, 「征婦怨」2首.

64) 『詩經』, 「小雅·皇皇者華」: “載馳載驅, 周爰咨詢.”

65)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序』.

66) 鄭道傳의 「圃隱奉使藁序」를 참조하면 『圃隱集』이 출간되기 전 「圃隱奉使藁」가 單行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도전이 서에서 언급한 작품 대부분은 『圃隱集』卷一에 수록되어 있다.

우왕 10년, 정몽주의 서장관으로 명태조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던 정도전은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일을 되새기고 그 땅을 생각하며 완연하게 눈 속에 있으니, ‘시로써 가히 관찰할 수 있다(詩可以觀)’는 말이 어찌 미덥지 않은가?”라고 감탄하고, “아! 선생의 학문이 후세에 공이 있고 선생의 시가 세상의 교화에 관련되는 것이 이러하니 어찌 우리 道를 위해서 중하지 않겠는가?”⁶⁷⁾라며 기꺼운 마음으로 『圃隱奉使藁序』를 적었다.

본문에서는 정몽주가 1386년 사행에서 남긴 시 가운데 발해 북쪽 요습 땅의 군용과 발해 남쪽 등래의 경물을 담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몽주는 요습 땅을 오가며 전략 요충지에 설치된 위소와 역참, 그리고 병사 등을 시로 기록하였다. 요하를 지날 때는 강을 가득 메운 조운선을 시에 담았고, 여순구에서는 군사와 군수물자를 나르는 수많은 선박들을 보며 본격적인 요동 정벌을 위해 군용을 갖추어 가던 당시 요습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비록 남아 있는 시편이 많지 않아 그 전모를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당시 산동의 군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발해를 건너 등주와 래주를 경유한 정몽주는 바다의 험난함과 함께 고려 문인으로서 처음으로 진시황과 관련된 등래각과 지부산, 전횡의 고사와 관련한 전횡도와 명호도에 대한 시를 남겼다. 그가 남긴 시는 이후 등주를 방문한 많은 고려와 조선의 사신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등래각을 노래한 100여 편에 달하는 시가 창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⁶⁸⁾ 중국의 역사에 밝았던 정몽주는 송태조와 관련된 래주해신묘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지 뱃사람들의 신앙 대상이었던 마조와 관련한 시를 남겨 마조신앙이 고려에 소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몽주가 남경을 다녀오며 적은 『江南紀行詩藁』를 읽은 이색은 “중국의 한가한 기상을 시로 노래하고, 우리나라가 경모하는 정성을 진술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詩史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경물을 읊고 흥취를 달랜 여러 시편은 음미할수록 남는 맛이 있다.”⁶⁹⁾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색의 평가처럼 1368년 정몽주가 남경 사행길에 남긴 작품들은 북벌을 준비하던 산동의 군사적 상황과 함께 등래의 오랜 역사와 경물뿐만 아니라 북벌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의 고통과 이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안타까움까지 두루 살피고 기록한 ‘詩史’이며, 使行詩의 典範이라 할 것이다.

67) 鄭道傳, 『三峯集』 第3卷, 「圃隱奉使藁序」.

68) 袁曉春, 「高麗使節鄭夢周登州史迹考」, 『연변대학학보』, 제43권 제1기, 2010, p.67.

69) 李穡, 『圃隱集』 卷四 「圃隱先生集附錄」, 「書江南紀行詩藁後」: “至於歌詠大朝閒暇之氣像, 陳述小邦傾嚮之精誠, 所謂詩史也. 其餘詠物遺興雜篇, 咀嚼有餘味.”

【참고문헌】

<단행본>

- 鄭夢周, 『圃隱集』.
李 穡, 『牧隱集』.
李崇仁, 『陶隱集』.
鄭道傳, 『三峯集』.
洪翼漢, 『朝天航海錄』.
『高麗史』.
『太祖高皇帝實錄』.
『詩經』.
司馬遷, 『史記』.
徐 兢, 『宣和奉使高麗圖經』.
蘇 軾, 『蘇東坡全集』.
佚 名, 『天妃顯聖錄』, 臺灣銀行經濟研究室所編印, 1960.
포은학회, 『圃隱先生集』, 한국문화사, 2007.
_____, 『포은 정몽주의 외교활동』, 한국문화사, 2015.
_____,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세계관』, 한국문화사, 2014.
錢謙益 撰集, 許逸民·林淑敏 點校, 『列朝詩集』, 中華書局, 2007.
耿 昇·劉鳳鳴·張守祿 主編, 『登州與海上絲綢之路』, 人民出版社, 2009.
星斌夫, 『明清時代交通史の研究』, 山川出版社, 1971.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2007.

<논문>

- 최낙민, 「圃隱 鄭夢周의 前期 使行 考察」,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6호, 2022.
박현규, 「고려 하평축사(賀平蜀使)의 수로 교통」, 포은학술총서6권 『포은 정몽주의 외교활동』, 한국문화사, 2015.
남의현, 「遼東都司 防禦體系와 支配力の 限界」, 『東洋史學研究』, 제93집, 2005.
袁曉春, 「高麗使節鄭夢周登州史迹考」, 『연변대학학보』, 第43卷 第1期, 2010.
陳尙勝, 「明朝初期與朝鮮海上交通考」, 『海交史研究』, 1997年 1期.
張士尊, 「洪武年間遼東海運論述」, 『鞍山師專學報』, 1993年 第2期.
萬 明, 「明代登州與海洋文明: 城市空間的解讀」, 耿昇·劉鳳鳴·張守祿 主編, 『登州與海上絲綢之路』, 人民出版社, 2009.

<기타자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鄭夢周, 使行, 山東, 軍容, 景物				
	영문	Chung Mong-Ju, Diplomatic mission, Shandong, Military power & equipment, History and culture				
<div><div>The Study of LiaoXi(遼靑) and DengLai(登萊) of Shandong through Chung Mong-ju's Diplomatic Poems</div><div>Choi Nack-Min</div></div> <div><p>In this paper, along with Goryeo's diplomatic efforts to open the Shandong diplomatic route after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 examined the military power, equipment, 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handong region through a poem created by Chung Mong-ju in 1368.</p><p>Chung Mong-Ju went back and forth from the Shandong LiaoXi area, recording the military defense base and the post station installed by the Ming Dynasty at strategic points, and described a grain carrier that filled Liao rivers. Also he recording many warships carrying soldiers and military supplies in the Lushunkou. Chung Mong-Ju after crossed Bohai and passed through Shandong Dengzhou-Laizhou went to Nanjing. And in DengLai he recorded Penglaige and Zhifushan related to Qin Shi Huang, also described Tianheng Island and Minghu Island related to Tianheng, who king of Ji. All of these contents wer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s of Deunglai, which he learned through the history books of Sima Qian. And Chung Mong-ju also left a poem about Mazu, who goddess of the sea, and sea god Shrine which local sailors believe.</p><p>This paper tried to record the situation at the time when military operations were prepare to conquer Liaoning Area along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s of Shandong Province, and to reveal the value of Chung Mong-Ju's epic poetry, which recorded the lives of the people suffering from war.</p></div>						
저 자	최낙민 / 崔洛民 / Choi Nack-Mi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10.	심 사 일	2023.03.05.	게재확정일	2023.03.20.